환경부, 기업 환경성 평가 체계 마련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공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 환경성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가 진단을 통해 환경성 개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체계 지침서는 환경부가 수집 · 관리 중인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정량 지표 중심 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환경적으로 유사한 기업 간 비교가 이뤄지도록 환경성 평가에 적합한 25개 산업분류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환경정보 DB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 특성, 업종별 유사성을 분석해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중분류(77개)를 25개 산업분류로 재편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국내 기업 8만2432개 약 180만 건의 환경정보를 분석 · 평가해 주요 환경지표에 대한 산업별 분포현황, 통계 정보, 다양한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세부적인 점수체계를 공개함으로써 환경성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평가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지표를 정량 지표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로 구성된 4가지 분야 정량평가를 통해 기본부문(100점)을 구성하고 기업이 취득한 환경분야 인증실적, 환경관계법규 위반실적 등을 활용

하여 가 · 감점 부문(10점)을 구성했다.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산정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원단위 배출량을 활용해 매출액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의 환경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감축 성과, 산업 내 위치, 산업 위험도로 구분해 평가 산식도 구성했다.

기업의 감축 노력과 직접 연관될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금융권의 환경성 평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개선을 뒷받침하는데 환경성 평가체계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을 대체해 환경성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협약금융기관에 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금융 혜택이 제공되는 환경책임투자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환경경영 의지를 높이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에 따른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위험 분야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평가체계 제도 간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핵심 평가 지표로 반영한다.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항목과 환경성 평가체계 항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환경성 평가체계를 비롯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서비스를 18일부터 개시했다.

종합플랫폼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녹색채권 사후보고, 기업의 환경성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해 기업,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두수 기자 kienews@naver.com

1월 월평균 최대전력, 역대 최고치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

국내 주요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1월 월평균 최대전력이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월평균 최대전력은 7만9천797MW로 전년 동월의 7만7천620MW 보다 2.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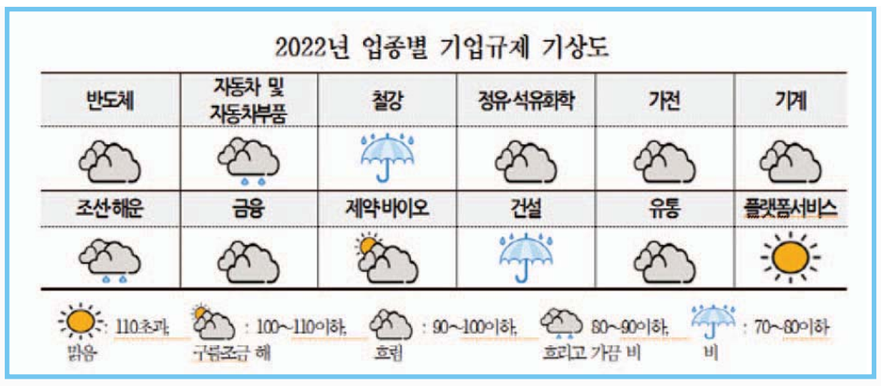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수요이며,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 동안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

평균 최대전력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경기 회복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줄곧 감소하던 전력수요는 지난해 연간 전력 판매량이 53만3천431GWh로 3년 만에 반등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판매량(52만499GWh)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원안보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조영 기자 kienews@naver.com



국내 기업 기업규제 환경 부정적 전망

한국경영자총협회 여론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10인 이상 총 1112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가 93.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로 기업들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RSI는 향후 기업규제 수준에 대해 사업체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 한 체감규제 전망지표로 기업경기 전망지수(BSI)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한다.

100을 기준치로 이를 밑돌아 0에 근접할수록 기업규제 환경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100을 초과해 200에 가까울수록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과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73.4)과 철강(77.5)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으로 건설과 철강 업종 기업들이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조선 · 해운(87.2)과 자동차 · 자동차 부품(89.4)도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봤다.

/안조영 기자 kienews@naver.com

*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단위 : GWh)

순위	제조사명	2020. 1~12	2021. 1~12	성장률	2020 점유율	2021 점유율
1	CATL	36.2	96.7	167.5%	24.6%	32.6%
2	LG에너지솔루션	34.3	60.2	75.5%	23.4%	20.3%
3	파나소닉	27.0	36.1	33.5%	18.4%	12.2%
4	BYD	9.8	26.3	167.7%	6.7%	8.8%
5	SK 온	8.1	16.7	107.5%	5.5%	5.6%
6	삼성SDI	8.5	13.2	56.0%	5.8%	4.5%
7	CALB	3.4	7.9	130.5%	2.3%	2.7%
8	Guoxuan	2.4	6.4	161.3%	1.7%	2.1%
9	AESC	3.9	4.2	7.8%	2.7%	1.4%
10	SVOLT	0.6	3.1	430.8%	0.4%	1.0%
기타		12.5	26.0	107.1%	8.5%	8.8%
합계		146.8	296.8	102.3%	100.0%	100.0%

* 전기차 판매량이 집계되지 않은 일부 국가가 있으며, 2020년 자료는 집계되지 않은 국가 자료를 제외함.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 중국에 선방

국내 전기차(EV)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싸움에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는 글로벌 2021년 연간 EV 배터리 탑재 사용량 순위를 7일 공개했다.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세계 2위 LG에너지솔루션은 60.2GWh로 집계됐다.

공급량은 2020년보다 75.5%포인트 늘었으나 점유율은 20.3%로 전년(23.4%) 대비 오히려 줄었다.

SK온은 공급량 16.7GWh로 5위에 올랐으며 점유율은 5.6%로 전년(5.5%)과 비슷했다.

삼성SDI(13.2GWh)는 56%포인트 성장률을 보였으나 점유율이 5.8%에서 4.5%로 하락했다.

중국 CATL은 전체 1위로 96.7GWh의 공급량과 점유율 32.6%를 차지했다.

전년(36.2GWh) 대비 167.5% 급증한 수치다.

중국계 업체는 이외에 4위 BYD, 7위 CALB, 8위 궈쉬안, 9위 AESC, 10위 S볼트 등 톱10에 총 6개가 포함됐다.

3위 일본 업체 파나소닉은 36.1GWh로 전년대비 33.5%포인트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편 전체 세계 시장 규모는 296.8기가와트시(GWh)로 2020년(146.8GWh)보다 약 2배 커졌다.

/안조영 기자 kienews@naver.com